

창립30주년기념 '95전국건축사 대회의 무기 연기에 즈음하여

李鍾寬 /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

올해는 협회 창립30주년이 되는 해이자 국가적으로는 광복 5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해방되기가 무섭게 분단된 조국은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반세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완의 광복인 셈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일제의 잔재가 있습니다. 이같은 일제의 반역사적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일제통치의 상징물인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헐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정신과 기상을 부활시키고 고양시키는 명시적 계기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결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50년전 당시 해방의 감격과 기쁨은 새로운 감회속에 되새기는 것 못지않게 불모의 한국건축을 자랑스럽게 일구어 온 우리 건축사들로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욱이 협회 창립 30년의 역사는 긍지와 자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집행부와 30주년기념행사준비위원회는 광복이후 오늘까지 우리의 건축문화를 이끌어 온 주역들의 결집체인 협회역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회원에게 심어준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발전논리의 제시로 회원과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으며, 한국건축의 새로운 위상을 모색하고자 오는 9월말 제주도에서 전회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기념행사를 겸한 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고자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건축계로선 치욕스러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그에 따른 대내외적 사유들로 인해 부득이 행사 추진을 무기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건축계에 큰 상처로 남게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건축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정부차원에서는 건설제도 전반에 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코자 기획단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본 협회는 협회차원의 개선책 및 대응책을 조속히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건축사들이 예정되었던 제주도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또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건설기본법의 검토가 재차 추진되고 한건연의 종합건설업 면허제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역시 이번 행사의 개최를 막는 또하나의 적신호가 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급박하게 변화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우리 건축계의 생존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행사준비에 있어 시간적 여유나 장소마련이 다급한 마당에 과연 제주행사가 의도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집행부는 신중한 논의끝에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무기연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 밝혀두고 싶은 것은 항간에 서울건축사회가 대회개최의 부당성을 집행부에 건의함으로써 행사가 무기연기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무근임을 지면을 통해 밝히는 바입니다.

행사준비위원장으로서는 회원과 협회를 위해 뜻깊은 행사를 꾸며보려 준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해왔으나, 불의의 삼풍백화점 사고와 긴박한 상황변화로 부득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행사를 무기연기하게 됨으로써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많은 회원들께 혼란을 끼치게 된 점 지면을 빌어 양해를 구하며 아무쪼록 향후 행사추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본 행사 준비과정 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던 제주건축사회 백형철 회장님과 임원, 제주도, 그리고 한진관광 측에도 지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는 10월 23일에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각계인사 및 전국 대의원을 초청해 조출한 기념식과 리셉션을 가질 예정입니다.